

# 전당의 초급당조직들, 수만의 화력중대의 진군포성을 장엄하게 울리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 제 1 차 전 당 초 급 당 위 원 장 대 회 폐 막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투쟁행로에서 처음으로 되는 역사적인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가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12월 25일 폐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고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이번 대회의 3일회의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평양 제육관에 나오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지도 밑에 회의는 계속되었다.

이날 회의는 우리 당의 초급당 중시사상을 피력한 실감마다에 조아하고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역사적투쟁에서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 전체 대회참가자들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혁명적의지가 새차게 분출되는 속에 진행되었다.

대회에서는 제명군 삼지강리당 위원장 리주남, 사리원시인민보안부 정치부장 빈문복, 문수물놀이장 판리소 초급당위원장 김현철, 평양 애육원 초급당위원장 김만옥, 원산 구두봉장 초급당위원장 전명화, 광책배아평공장 초급당위원장 박인철 등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인민에 대한 열사 부무를 존재방식으로, 혁명적대중으로 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의 명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며 당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나가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시고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가르쳐주시대로 당의 기본전투단위인 초급당조직들을 강화해나갈 때 전당이 강화되고 혁명위업의 승리를 이룩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더 굳게 새겨안게 되었다고 그들은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짜고들고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동시킴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과 당정책관철에서 성과를 이룩하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제명군 삼지강리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가슴속에 자기 고장에 어려있는 당의 명도업적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냈었다.

농장원들의 한결같은 충정의 마음을 당결정에 반영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대형모자이크벽화를 최상의 수준에서 정중히 모시는 과정을 통하여 대중의 실감마다에 그리움의 불길, 결사판결의 불길이 활화산같이 떠오르게 하였다.

토론들에서는 초급당조직들이 당의 청년중시사상을 받들어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와 청년교양에 품을 들임으로써 새 세대를 위한 교양방법의 생활력을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되었다.

원산구두봉장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애부산》구두를 인민들이 즐겨 찾는 명상품, 명제품으로 만들는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시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였다.

가장 정확한 평가의 기준은 인민들의 목소리라는 것을 명심하고

어머니당에 드리는 고마움의 노래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더 높게 울려 퍼지게 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 가르쳐주시대로 교양원들이 원아들에게 천부모의 정을 기울이는 어머니가 되자면 당조직이 교양원들의 어머니구실을 해야 한다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여온 평양애육원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성과는 참가자들에게 좋은 경험으로 되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한 교양원을 끝까지 이끌어 원아들로부터 《엄마》라고 정답게 불리워지게 하고 《최머니엄마일지》를 만들어 교양원들이 원아들에게 바치는 자기들의 진정을 새겨보도록 한것 등 실정에 맞는 참신한 사업방법들을 구원하여 당의 후대시랑을 꽃피우는데 이바지하였다.

문수물놀이장판리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의 은정이 인민들에게 더 뜨겁게 가닿도록 하기 위해 판리운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초급당위원회의 집체적협의를 통하여 풀어나갔으며 사람과의 사업을 마음과의 사업, 감정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갔다.

총업원들을 당의 인민편을 세심화한 참된 인민의 복무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인 궁정을 통한 교양방법의 생활력을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되었다.

원산구두봉장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애부산》구두를 인민들이 즐겨 찾는 명상품, 명제품으로 만들는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시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였다.

가장 정확한 평가의 기준은 인민들의 목소리라는 것을 명심하고

초급당위원회 위원들이 매일 주민들을 만나 그들의 의견을 들도록 하였으며 매일 군중합정회도 조직하여 누구나 한가지이상의 도안을 내놓도록 정치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오늘은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게 되었다.

토론들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추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과 당의 방침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그 관철에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시킬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리를 더욱 심장깊이 새겨안았다.

대회에서는 일부 기층당조직들의 사업에서 나타난 결함들과 전향들이 비판되었으며 그들 극복하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었다.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충정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정책적지도, 정치적지도도 바로하지 않아 인민의 이익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영상을 흐리게 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데 대하여 언급되었다.

또한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원칙을 어기고 행정대행을 하면서 독단과 전횡을 부리었으며 당의 혁명적중로선을 위반한 결함들이 엄중하게 비판되었다.

비판토론들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인민에 대한 부무관점을 바로 세우지 않고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뿌리뽑지 않는다면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의 존엄은 온 권위에 손상을 주고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되었다.

토론들에서는 모든 당일군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을 체질화하고 인생관화하여 사업과 생활에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본태와 명도방법에 어긋나는 사소한 요소도 나타나지 않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되었다.

토론들을 통하여 모든 참가자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을 위한 자기들의 사업과정을 당적관심과 당적원칙에서 심중히 돌이켜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와 적극적인 참가밑에 진행된 대회에서는 초급당조직들의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뿐만 아니라 사업에 내재하고있는 본질적인 결함들이 깊이있게 분석총화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바탕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들이 진지하게 토의되었다.

대회에서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중대한 역사적시기에 당의 야전지휘관들이 초급당위원장들의 대회를 마련해준 당중앙의 의도를 심장에 새기고 초급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비상히 높여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실현에 적극 이바지할 굳은 결의들이 표명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에서 결론을 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강령적지침을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으며 대회참가자들은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초급당사업에서 획기적전환을 일으켜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전격투를 열어나가야 할 직접적담당자라는 무한한 영예와 책임감을 가슴깊이 새기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 역사적인 결론을 마치시자 대회장에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

이 터져올랐다.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거룩하신 존함과 업적으로 빛나는 우리 당을 열기왕성하고 전투력이 강한 혁명의 참모부로 더욱 끈끈히 다져나가기 위한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주신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명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자!》,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의 구호를 우렁차게 뱉으며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머쳐올렸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폐회사를 하시었다.

대회는 《눈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이후 전당적인 첫 대회로 소집된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는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당, 생기발랄하고 전투적인 당으로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앞당겨나가는데서 역사적인 이정표를 마련한 의의깊은 대회합이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는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쳐나가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을 적극 고무추동한 혁명적총진군대회로 우리 당역사에 길이 아로새겨지게 될것이다.

본사정치정보단